

尹, 연말 대폭 개각...추경호 등 5~6명 총선 출마 타진

경제수장 최상목 유력·박진 유임 가능성...한동훈 법무 거취 관심 대통령실 참모진도 대폭 개편...외교·안보팀 급격한 변화 없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각 정국이 전개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자리를 지킨 장관들을 중심으로 대거 교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를 타진하며 사직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경제부총리 자리에는 최상목 현 대통령실 경제수석 발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후임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순위로 거론되고, 최중구 전 금융위원장 이름도 오르내린다.
원 장관은 최근 주변의 출마 권유가 커짐에 따라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 후임으로는 현재 복수 인사가 검토되고 있으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도 검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거취다.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종로와 같은 상징성이 높은 지역에 배치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간판급 후보를 상대로 '각계 공천'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치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총선 출마보다는 내각에서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함께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총선 차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 3월 하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퇴를 계기로 우려된 외교·안보팀의 재정비 방향에 대해선 아직 뚜렷하게 가닥이 잡히지 않은 모습이다.
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박 장관은 최근 주변에도 총선 관련 언급을 삼간 채 2030세벽박람회(엑

스포) 부산 유치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같은 대외 위기 관리 등에 매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안보실장직을 당분간 더 유지할 것으로 알려진 점도 박 장관 유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조 실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직을 두고 박 장관과 경합한 바 있으며, 이후 주미대사를 거쳐 안보실장 직을 수행 중이다.
또 연말까지 윤 대통령 순방 일정도 이어지는 데다 연초에도 한일중 정상회담, 2차 한미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외교·안보팀에 급격한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구개발(R&D) 예산 재배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 질타가 있었다고 알려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각 국면에서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수산물부 장관도 사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 모두 각각 연고에 있는 부산과 천안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교체된 국무위원 후임으로는 관료들 중점적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중론이다.
정치인 출신이 상대적으로 인사정문화 통과가 용이하지만, 장관급으로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이 총선 출마에 무게를 두는 데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료 출신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대구·경북,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 출마가 유력하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고양인 원주나 '장미란체육관'이 위치한 경기 고양 출마 가능성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된다.
한편, 개각과 맞물린 대통령실 2기 참모진 인선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고흥서 유자청 만들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한센인 환자들을 위로했다. 김 여사는 환자들을 격려하고, 한센인들이 참여하는 '연필화 그리기 프로그램'도 참관했다. 김 여사는 이어 평생 한센인들을 돌보며 헌신한 고(故) 마거릿 피사랙 간호사와 마리안느 스티거 간호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소록도병원 'M치료실'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김 여사는 고흥군 유자청 협농장에서 고흥군새마을화부녀회 등과 함께 유자청을 만들었으며, 이 유자청을 병원 방문시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대통령실 제공>

연일 신당설 띄우는 국힘 비윤계...총선 정국 변수되나

파괴력 놓고 당내 엇갈린 분석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들이 연일 탈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신당을 만들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 표를 잠식할 가능성, 오히려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깎아먹을 확률,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등과 함께 제3지대 정당을 만들 가능성 등을 놓고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서이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과 관련해 발언 수위를 점점 높이며 본격적인 신당 띄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6일 M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창당한다면 당연히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창당하는 데 물리적 어려

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들이 국민의힘에서 취약한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에 밀려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당내에서 이들을 어떻게든 끌어안아 총선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비윤 신당' 현실화는 여당에 약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인 셈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통합'을 강조하며 유 전 의원, 이 전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 "내년 총선은 결과에 따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며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면 여

렵사리 세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이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도 별 파괴력이 없거나 오히려 야당 표를 잠식할 것이라 시각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당 관계자는 "신당 여파가 클 것 같지는 않다. 현역 의원 중 탈당해 신당으로 넘어갈 의원도 없을 것"이라며 "그분들이 내세우는 가치가 중도층에 얼마나 어필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이 당에 남더라도 총선 정국에서 자금처럼 야당 대신 여론 내부를 향한 공격에만 몰두할 것 이란 의견도 있다. 비윤계의 정권과 당에 대한 비판이 '위험 수위'에 달해 당 내홍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들이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눈에 띈다. /연합뉴스

이상민·양향자·금태섭 '위성정당 폐지' 촉구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과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인 금태섭 전 의원 등이 7일 '위성정당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깨고,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정치혁신포럼 '당신과함께' 공동대표인 정태전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조성주 세번재권력 공동운영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의 직무 유기"라며 "현행 선거제

도가 유지되면 내년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등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를 제안한다"며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해서 위성정당을 밀어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과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메가시티 특위 "12월까지 특별법 발의"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논의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7일 공식 출범하며 연말 전 발의 등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정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마친 뒤 "연말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한두 개는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며 "아마 12월까지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결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 편입 추진 법안에) 특정 지역 한 두 군데만 (포함)할지 서너 군데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특위는 향후 관계 부처 업무보고, 전문

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공개 반대한 것을 두고 "지금의 서울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 수 없다"며 "광역단체장들이 편협한 사고와 지역 이기주의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울이 기폭제가 돼서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워내고 지방 도시들도 건강한 자족도시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증사자의 존중 캠페인

사회복지증사자를 향한
모욕, 조롱, 비하를 멈추면

Stop Start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증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주세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며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반말, 욕설, 희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부탁드립니다.

나의 부당한 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